

2015 새 설계

주철현 여수시장

“국제 해양관광도시 도약...여수산단, 혁신산단 본격 육성”



“소통·변화·혁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으로 아름다운 내고향 여수를 살기좋은 ‘국제 해양 관광 중심도시’로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5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여수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새해 주요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주 시장은 우선 ‘서민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획기적인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지역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여수시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일본 스기노 모세이가 등 9개 기업과 1787억원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또 여수 국가산단내 녹지 66만㎡의 용도변경을 통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 여수시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여수 국가산단의 ‘혁신 산업단지’ 선정이 지난해 말 이뤄짐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3520억원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서민경제 활력

명문고 설립·의료시설 확충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산단안전 분야 강화 등 여수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주 시장은 자녀교육과 의료여건 때문에 외지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명문고 설립과 의료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소재·축립지구에 경쟁력 있는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읍촌산단 인근 지역을 주거환경이 좋은 저렴한 택지로 개발해 인구를 유입시켜 나간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지역 최대 숙원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여수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의 해양관광자원인 365개의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바다·해안을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아름다운 여자만에서 오동도까지 이어지는 해안 자전거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라선 폐선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힐링 분야 ‘체류형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주 시장은 “새해에는 해양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 내겠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주제별 관광지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는 지역 어르신 인력을 활용해 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여수시는 복지 정책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주 시장은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건 등을 깊이 새겨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민선 6기 핵심 가치(旗幟)를 중심으로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주 시장은 또 청렴 시정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실제 민선 6기 들어 신입 공무원들은 물론 기존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온 여수시는 성실·청렴도 등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을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지역내 소비 범시민운동 전개
- ▲명문고 설립과 의료시설 확충 적극 추진
-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국회와 정부에 건의
- ▲365개의 섬과 바다, 해안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화
- ▲여자만~오동도 해안 자전거도로 단계적 확충
- ▲이순신 장군 관련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해 갈 계획이다.

여기에 공직자의 성실성과 청렴도 등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는 ‘공무원 평가제’를 전격 실시해 시민이 주인 된 시정을 중점 펼쳐갈 방침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꾸준한 교육과 소통으로 2000여 공직자의 자긍심을 회복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을 펼쳐 가겠다. 30만 시민의 열정과 잠재력을 하나로 모아 ‘다시 뛰는 젊’은 여수, 행복한 새 여수’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역 화합·발전 이끌자” 여수상의 신년인사회



300여명 참석...상공대상 시상식도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심장섭)는 5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인사회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 주철현 여수시장, 박정재 여수시의회 의장과 도·시 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올해는 새해를 맞아 여수·고흥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을 초청해 새해인사와 더불어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

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2015년 여수상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경영부문에 금호석유화학㈜ 송서근 부사장과 ㈜영동이앤씨 박정일 대표이사가 선정됐으며, 근로복지부문에 여천NCC㈜ 서영오 부장이 선정됐다.

지역개발부문에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경감 정형선, (사)대한속박업중앙회 장성배 여수지회장, 전남관광㈜ 송영진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특별 공로상은 전남대학교 박복태 교수가 수상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백병원 관절 전문병원 재선정

여수 백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제2주기 관절 전문병원’으로 다시 선정됐다.

여수 백병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권에서 유일하게 2회 연속 관절질환 전문병원으로 재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여수 백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관절 질환전문 병원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되고 2011년 호남에서 유일하게 관절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2회 연속 관절 전문 병원으로 재선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모두 99개의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첫 지정이 이뤄졌으며, 그 가운데 관절전문병원은 여수 백병원을 포함해 10개였다.

제2주기 전문병원은 여수백병원을 포함해 111개 병원이 지정됐으며, 관절전문병원은 18개 병원이다.

백장회 여수백병원 원장은 “2회 연속 전문병원으로 재지정된 만큼 어깨치료의 선두주자로서 어깨가 아픈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수협 초매식...민어·삼치 등 344t 첫 위판

여수지역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15년 초매식(初賣式)이 지난 2일 여수수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김형주 여수수협장,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매식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수산인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고사제, 풍어오색기 게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어선 30척이 잡은 민어와 삼치, 아귀 등 344t(13억원 상당)의 어획물에 대한 첫 위판이 개시됐다.

여수수협은 1924년 어업조합 설립 이후 매년 1월 초 초매식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여수지역 수산물 위판량은 2만9477t, 위판액은 1325억원을 기록했다.

주철현 시장은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어족자원 보호에 수산인들이 앞장서 달라”며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난 2일 여수수협에서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며 열린 ‘2015년 초매식(初賣式)’. <여수수협 제공>

창출,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와 여수수협은 공동으로 오는 4월 중순까지 돌산을 군내리에 ‘여수수협 군내 활어위판장’을, 봉산동 여수수협 건너편에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등 수산도시로서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고급화를 추진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흥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진월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광주광역시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0055	함평군	324-8111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남원지국	283-1540	목포시	276-9200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화순군	374-4423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곡)	순천시	746-8111
강진군	434-6830	해남군	537-6767	고흥군	842-2121	광양시	792-8111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여수시	692-0997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신문구독_062
220-0551

예향구독_062
220-0550